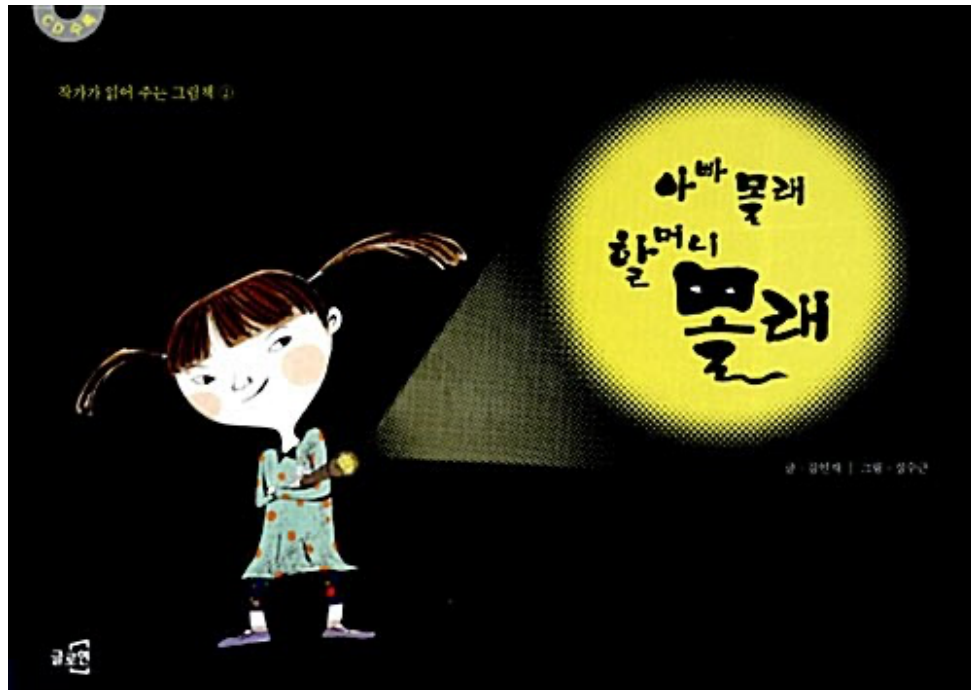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

김인자 글 · 심수근 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인물의 행동에서 빛나는 미덕을 찾아 내 삶에 반영하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함께, 봉사, 배려, 미덕, 선행, 이웃돕기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4도01-01] 도덕 시간에 무엇을 배우며 도덕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모범 사례를 통해 습관화한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어느 날부터 아빠의 차 안이 길거리에서 주운 폐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차를 몰고 나가시지요. 도대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딸 민지는 아빠 몰래 차 안에 숨어서 아빠가 매일 밤 가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민지는 어린 시절의 아빠가 할머니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폐지를 줍는 이웃 할머니께 다하고 있는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와 민지는 한마음이 되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 드리지요. 할머니 모르세요.
그러나 할머니가 정말 모르실까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누룽지사탕이 그 답을 알려준답니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의 행동에서 빛나는 미덕을 찾고 내 삶에 반영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는 민지와 민지의 아빠가 폐지 줍는 할머니를 몰래 돕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폐지를 줍는 낯선 아빠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낀 민지가 아빠를 몰래 따라가면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도 민지처럼 아빠의 행동이 궁금하다. 왜 민지의 아빠는 폐지를 모아 차에 싣고 한밤중에 낯선 곳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이웃을 배려하는 등장인물의 행동에서 미덕을 찾는 활동을 계획했다. 아이들이 찾은 미덕의 이름이 다 다를지라도 ‘함께’의 가치를 품은 따뜻함이 묻어나는 단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책을 읽은 아이들이 등장인물처럼 누군가를 몰래 돕고 친절을 베푸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해 보고 싶어서 수호천사 되기 활동도 계획했다. 읽기 과정을 4차시에 걸쳐 계획하였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선택활동도 해보길 권한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내 일상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수업 준비물	동기유발 자료(사진 또는 동영상), 미덕 카드, 붙임 종이
--------	----------------------------------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 남몰래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 엿보기 표지 살펴보기	2차시
읽는 중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예상·파악하기 - 그림의 특징 찾아보기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글귀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을 읽은 소감 나누기 등장인물의 마음 헤아리기	
읽은 후	미덕 찾기 - 그림책에서 빛나는 미덕 찾기 - 빛나는 미덕상 만들기	1차시
	친구 몰래 가족 몰래 수호천사 되기 - 수호천사가 되어 다른 사람 몰래 돕기 실천하기	1차시
	【선택 활동】 - 민지의 일기 대신 쓰기 - 사진과 그림으로 주제 표현하기 - 내 마음을 선물(사탕)에 담아 전하기	선택활동

읽기 전

1. 마음 열기

■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 자료(사진이나 동영상)를 함께 살펴봅시다. 어떤 모습인가요?

예: 다른 사람들을 (몰래) 돕는 모습입니다.

Tip.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장면, 연탄 배달을 돕는 모습, 구세군 자선 냄비에 성금을 내는 장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 달라고 자신이 번 돈을 기부하는 모습,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챙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나 뉴스의 한 장면, 동영상 등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2. 표지 살펴보기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입니다.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표지가 주로 검정색이고 손전등으로 비춘 부분은 노란색으로 밝아요.

여자 아이가 손전등을 가지고 있고 손전등이 비친 부분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책 제목 글자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몰래’라는 글자에 눈동자가 숨어 있어서 몰래 숨어서 보는 것 같아요.

밤에 여자 아이가 아빠와 할머니 몰래 어떤 일을 꾸밀 것 같아요.

여자 아이 표정을 보니 개구쟁이 같아요.

■ 면지 살펴보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밤에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같아요.

도로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불빛 같아요.

표지에 여자 아이가 들고 있던 손전등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 속표지 살펴보기

-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여자 아이가 검지 손가락을 입술 위에 대고 ‘쉿! 비밀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의 표정과 행동이 책 제목과 잘 어울려요.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예상하기

- 아빠는 왜 운전을 하다가도 폐지를 보면 차를 세우고 폐지를 주워 신는지 그 이유를 예상해봅시다.

예: 폐지를 모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 같아요.

폐지를 주워서 재활용할 것 같아요.

- 아빠가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지 예상해봅시다.

예: 모아 온 폐지를 다른 곳에 두고 올 것 같아요.

대리운전을 할 것 같아요.

- 아빠가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을 어디일지 예상해봅시다.

예: 고물상이에요.

Tip. 그림책 앞 몇 장면은 아빠의 행동에 호기심이 생긴 민지가 아빠를 몰래 뒤쫓아 가는 모습이다. 아빠가 왜 밤마다 폐지를 줍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쉽게 예상하지 못한다. 아이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이어질 내용을 예상해 보기 좋다.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 민지, 민지의 아빠, 폐지를 줍는 할머니, 아빠의 할머니

- 아빠와 내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가 사시는 곳입니다.

- 아빠는 어렸을 때 왜 할머니를 싫어했나요?

예: 빈 병을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앓는 소리를 하는 게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 아빠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예: 비 오는 날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리어카를 끌어 드렸어요.

- 할머니는 아빠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예: 누룽지 사탕 한 움큼을 쥐어 주셨어요.

- 왜 아빠는 할머니께 폐지를 몰래 갖다 드리는 걸까요?

예: 할머니가 아시면 부담스러울까봐 몰래 갖다주는 것 같아요.

밤에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깨지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 며칠 뒤 다시 찾은 할머니 댁에서 민지와 아빠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예: 할머니 리어카에 아빠는 야광 삼각대를 매달아 드리고 민지는 ‘조심 조심 할머니가 운전 중이에요’라고 쓴 팻말을 달아 주었어요.

- 다시 찾은 할머니 댁에서 아빠와 민지는 어떤 일을 하였나요?

예: 할머니 몰래 리어카 바퀴에 바람을 넣어 주었어요.

Tip. 그림책 뒷 면지에 안내된 QR코드로 김인자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낭독을 함께 들어도 좋다.

■ 그림의 특징을 찾아보기

- 그림의 특징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예: 거리와 도로 모습을 찍은 사진이 배경이에요.

흑백 사진을 배경으로 두고 그 위에 그림을 올려서 올려놨어요.

사진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신선해요.

Tip. 펄칩 페이지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구수한 누룽지 사탕이 하나씩 숨어 있다. 그림 속에 꼭꼭 숨어있는 누룽지 사탕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2.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글귀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문장을 이야기해봅시다.

예: 아빠가 할머니를 싫어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빈 병을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가 부끄러웠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조금 후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빠에게 고맙다고 누룽지 사탕을 주는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민지가 할머니 리어카에 ‘조심 조심 할머니가 운전 중이에요.’ 푼말을 단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 그림책을 읽은 소감 나누기

- 그림책을 함께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 민지와 아빠가 어려운 할머니를 몰래 돕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요.

제목이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인 이유를 알겠어요. 민지가 아빠 몰래 아빠를 따라갔고 민지와 아빠가 할머니 몰래 할머니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제목만 보고 여자 아이가 아빠와 할머니 몰래 어떤 장난을 치는 이야기일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한 일을 했네요.

이제 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 작가가 이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주변을 잘 둘러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라고 쓴 것 같아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도 기분이 좋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저는 민지 아빠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약간 후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부모님께 공손하게 행동하라고 그림책을 쓴 것 같아요.

Tip.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고 그림책을 쓴 의도나 그림책에 담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등장인물의 마음 헤아리기

■ 등장 인물의 표정과 마음 살펴보기

- 민지의 표정을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민지의 표정은 어떤가요?
- 민지의 표정을 흉내내어 봅시다.

예:

				
아빠에게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의심하는 표정이에요.	아빠 몰래 아빠 차에 따라 타 보려고 결심한 표정이에요./의기양양해요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으려는 표정이에요.	아빠한테 들켜버려서 실망했어요./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	즐거운 표정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민지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민지는 아빠가 어떤 비밀을 숨기는 것 같아서 아빠를 의심했지만 곧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빠가 멋지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민지는 아빠의 비밀에 호기심이 생겼고 아빠가 다른 사람을 몰래 돕는 일을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도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고 뿌듯했을 것 같아요.

■ 비슷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민지와 민지의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몰래 도와줬던 경험이 있나요? 폐지 줍는 할머니처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경험을 떠올려봅시다.

예: 제 용돈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적이 있어요. / 구세군 냄비에 성금을 냈어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안 입는 옷을 정리해서 봉사 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어요.

- 그때 기분은 어떤가요?

예: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 자랑스러웠어요. / 기분이 좋았어요.

읽은 후

1. 미덕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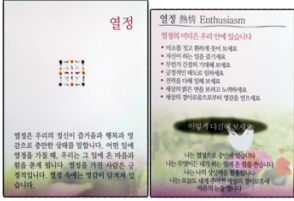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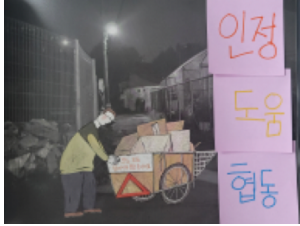
■ 그림책에서 빛나는 미덕 찾기

- 민지와 아빠가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에서 빛나는 미덕을 찾아봅시다.
- 미덕의 보석들과 미덕 카드를 활용해봅시다.
- 그림 장면에서 빛나는 미덕을 찾아 붙임종이에 써서 붙여봅시다. 왜 그 미덕이 떠올랐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봉사- 민지와 아빠가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에서 '봉사'의 미덕을 발견했어요.

배려- 민지와 아빠가 몰래 좋은 일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배려'의 미덕이 빛나요.

협동- 민지와 아빠가 힘을 모아 할머니 리어카를 수리하는 모습에서 '협동'의 미덕이 빛나요.

			
미덕의 보석들 배너	미덕 카드	그림책 장면에서 찾은 미덕 표시하기	

※ 한국버추프로젝트 <http://www.virtues.or.kr/> <미덕의 보석들>을 활용하여 미덕을 찾고 그 뜻을 알아본다.

■ 빛나는 미덕상 만들기

- 민지와 민지의 아빠의 모습에서 발견한 빛나는 미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미덕상을 만들어봅시다.

예: 봉사상-위 사람은 주위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치지않고 몰래 도와주며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였기에 상장을 줍니다.
 탁월함상-위 어린이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안전을 걱정하며 리어카에 '조심 조심 할머니가 운전중이에요'라고 써 탁월함을 보였기에 이 상장을 줍니다.

Tip. 미덕상 활동지는 상장형식으로 만들어 나누어준다.

【선택 활동】

1. 민지의 일기 대신 쓰기

- 내가 만약 민지라면 아빠와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일기로 썼을까요?
- 민지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써 봅시다. 민지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그때의 마음과 기분, 다짐 등을 넣어 써봅시다.

2. 사진과 그림으로 주제 표현하기

- 이 그림책은 사진을 찍어 배경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인물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 배경 사진과 그림을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해봅시다.
- 먼저,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필요한 배경을 찍습니다.
 예: 주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
- 내가 익숙한 장소를 정한 뒤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배경 사진 위에 필요한 상황이나 인물 그림을 더 그려 넣어봅시다.
 예: 교실 배경 사진-분리배출 쓰레기통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바르게 넣는 모습을 그려 넣는다.
 아파트 현관문 사진-바로 뒤이어 들어오는 이웃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모습을 그려 넣는다.

3. 내 마음을 선물(사탕)에 담아 전하기

- 내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험이 있나요?
-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쪽지와 작은 선물(사탕)을 몰래 전해봅시다.

Tip. 그림책에 나오는 누룽지 사탕은 고마움의 표현 또는 정(情)을 상징한다. 폐지 줍는 할머니는 민지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을 누룽지 사탕 한 움큼에 담아 보냈다. 민지와 민지의 아빠는 할머니 몰래 선행을 베푼 날 밤 할머니 댁 문 손잡이에 누룽지 사탕 한 봉지가 걸려있다. 민지와 민지의 아빠가 두고 간 걸 수도 있고 어쩌면 할머니가 걸어둔 걸 지도 모른다. 아이들과 누룽지 사탕의 의미를 생각해본 뒤 주변 고마운 사람에게 사탕 같은 작은 선물을 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읽어주는 할머니 김인자 글, 이진희 그림

작가가 읽어 주는 그림책 시리즈 ①

글자를 읽지 못하는 외할머니를 위해 매일 밤 그림책을 읽어 주는 손녀딸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았다. 할머니와 외손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이 가족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림이 돋보인다.

글로벌에서 펴내는 보고 읽고 들으며 느끼는 ‘작가가 읽어 주는 그림책’ 시리즈의 첫 책으로, 작가인 ‘책 읽어 주는 엄마’ 김인자 선생님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달콤한 책 읽기를 들려주는 CD가 부록으로 들어 있다.

#할머니 #사랑 #가족



비밀상자 김인자 글, 김보라 그림

작가가 읽어 주는 그림책 시리즈 ③

할머니와 손녀딸이 꾸며가는 조손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글이 연이의 현실을, 그림이 그 주변에서 연이를 감싸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며 연이와 할머니를 위한 따뜻한 하모니가 연주되는 듯하다.

구멍 난 고무신을 늘 꿰매어 신는 할머니께 드리려고 새 신을 사놓은 손녀 연이. 그렇지만 선뜻 드리지는 못한다. 혹시 그 신을 신고 할머니가 멀리 어디론가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미 엄마와 아빠를 떠나보낸 연이에게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은 매순간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되었는데...

#할머니 #사랑 #가족 #이별

